



KIA 타이거즈가 14일 선수단과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양파크호텔에서 2009시즌 납회식을 개최했다. 김상현은 이날 구단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최희섭과 양현종은 각각 최우수 타자상과 최우수 투수상을 수상했다. 이강철 투수 코치는 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선수단은 납회식이 끝난 후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올 시즌 동안 적립한 성금과 후원 물품을 기부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승잔치 끝... 다시 시작이다”



최희섭·김상현·나지완·안치홍·이현곤 등 포항으로

홍세완·채종범 재기 준비...자율훈련으로 'V11 기약'

KIA의 우승 잔치는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14일 납회식을 갖고 숨 가쁘게 전개된 2009시즌을 갈무리 했다. KIA의 공식일정은 끝났지만 2010시즌을 향한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범현 감독은 납회식에서 “가을 마무리 훈련을 중요시 생각하는데 올 시즌은 우승 이후 일정이 많아서 준비가 부족했다”며 “선수들 스스로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2010시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선수단에 주문했다. KIA는 우승팀으로의 일정을 소화하느라 내년 시즌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

지 못했다. 한국시리즈와 한·일클럽챔피언십 참가로 어느 해보다 긴 시즌을 보낸 KIA는 우승기념 행사와 여행 그리고 방송 출연과 각종 시상식 참가로 분주했다. 윤석민과 이용규는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느라 몸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인적으로 훈련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른저녁 스케줄로 인해 지난해에 비하면 선수들의 몸만들기가 한참 부족한 상태. 15일 KIA의 핵심멤버들이 포항에 자체 캠프를 차린다. 지난해 황병일 수석코치의 인솔 아래 포

항에서 자율훈련을 했던 최희섭·나지완·안치홍이 다시 한 번 ‘약속의 땅’으로 향한다. 여기에 김상현·이현곤·박기남이 가세했다. 이용규는 지난 봄 수술을 받은 발목 부위가 좋지 않아 재활훈련을 거친 뒤 캠프에 참가할 계획이다. 포항행에 앞서 최희섭·김상현은 14일 오후 처음으로 연봉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구단과 이견을 보이며 1차 협상은 결렬됐지만 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주전 선수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묵묵히 땅을 훑었던 2군 선수들도 납회식 하루 달콤한 휴식을 뒤로하고

다시 스파이크끈을 조여맨다. 포항캠프 개시로 15일부터 KIA의 전진 기지는 4군데로 늘어난다.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는 홍세완·채종범 등 재활군이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 1년차 투수 정성철·정용운과 입단을 앞두고 있는 ‘아기 호랑이’ 임기준 등 어린투수들은 진흥고에서 공을 가다듬고 있다. 화순고에서는 타자들의 베프가 매섭다. 내야수 김선민·최용규·김민철 등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조 감독은 “예전과 달리 선수들 스스로가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먼저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즌때보다 더 뜨거운 호랑이들의 움직임이 자율훈련 기간인 12월을 달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금호고 출신 기성용 명문 셀틱FC와 4년 계약

한국 축구의 ‘희망’ 광주 금호고 출신 기성용(20·전 FC서울)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인 셀틱 FC와 장기 계약에 성공했다. 셀틱은 13일(한국시간) 밤 한국 축구대표팀의 간판 미드필더인 기성용과 내년 1월1일부터 4년간 계약하기로 합의했다고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2009년 ‘아시아 올해의 젊은 선수’로 선정된 기성용은 영국에서 뛠 수 있는 최연소가(워크퍼밋)를 얻었으며 이달 말 셀틱 선수단에 합류해 팀 적응훈련을 가질 예정이다. 셀틱은 기성용의 이적료와 연봉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적료는 200만파운드(한화 37억 9천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성용이 입단한 셀틱은 1888년 창단돼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42차례나 우승한 명문 구단. 글래스고가 연고지로 관중 6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셀틱파크가 홈구장이다. 기성용은 그간 한국대표팀 경기에 17차례 출장했으며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 전 경기를 뛰었다. 그는 “굉장한 역사를 지니고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셀틱과 계약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셀틱이 세계 최고의 서포터스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니 모브레이 셀틱 감독은 “기성용을 영입해 매우 기쁘다. 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선수라고 확신한다”며 “기성용을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 팀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성용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지난 9일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돼 훈련하는 기성용이 19일 일본과 평가전을 끝내고 23일 스코틀랜드로 출국한다”며 “그전에 21일 국내에서 셀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단식과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성용은 내년 1월1일부터 선수등록을 할 수 있어 팀 적응훈련을 마치고 나면 실전 투입은 1월 중순께나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맨유 깃스, 올해의 스포츠 선수

영 BBC 방송 선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베테랑 미드필더 라이언 깃스(36·웨일스·사진)가 영국 BBC 방송이 선정한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 뽑혔다. 1990-1991시즌부터 맨유에서만 뛰었던 깃스는 14일(한국시간) 발표된 팬 투표 결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에서 2009 시즌 정상에 오른 젠슨 버튼, 세계육상선수권대회 7종 경기 우승자 제시카 에니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올해로 55회째를 맞는 이 상을 축구 선수가 받는 것은 2001년 데이비드 베컴 이후 깃스가 8년 만이다. 이전에



BBC 올해의 스포츠 선수로 뽑힌 축구 선수는 1966년 보비 무어, 1990년 폴 개스코인, 1998년 마이클 오언과 2001년 베컴이 있었다. 영국 남자 크리켓팀이 올해의 팀에 선정됐고 잉글랜드 축구대표팀 파비오 카펠로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에 뽑혔다.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2년 연속 해외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연합뉴스

홍명보 야게임 사령탑도

올림픽축구대표팀과 결임 내년 광저우 대회 이끌어

홍명보(40·사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사령탑도 겸임한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위원장 이희택)는 14일 “홍명보 감독에게 2010년 11월12~27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릴 아시안게임 대표팀(23세 이하) 감독직도 함께 맡기로 했다”라면서 “선수 구성 등 대표팀 운영도 홍 감독에게 맡기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까지 올림픽 대표팀을 지휘하는 홍명보 감독은 아시안게임 대표팀 사령탑을 겸임한다. 기술위원회는 또 최근 사표를 제출한 18세 이하(U-18) 대표팀의 조동현(58) 감독의 후임으로 2009 국제축구연맹(FIFA) 17



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한국을 8강으로 이끈 이광종(45)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조영중 축구협회 기술교육국장은 “광저우 아시안게임은 런던 올림픽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했다”라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국장은 이어 “이광종 감독도 내년 아시안축구연맹(AFC) 19세 이하 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청소년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질과 경력을 갖췄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주영 팀은 졌어도... 모나코의 박주영(가운데)이 14일 모나코 루이2세 경기장에서 열린 릴 OSC와의 홈 경기에서 릴의 수비수 아딜 라미(왼쪽)와 공중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널, 리버풀 꺾어

영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명문 아스널이 적지에서 리버풀을 꺾고 우승 희망을 이어갔다. 아스널은 14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벌어진 2009-2010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리버풀에 2-1로 역전승했다.

아스널은 승점 31을 기록해 아스톤 빌라(29점)를 제치고 선두 첼시(37점)와 2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34점)에 이어 리그 3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리버풀은 승점 24로 7위에 머물러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주어지는 4위권에 5점차까지 뒤떨어졌다. 아스널은 전반 41분 디르크 카윗에게 선제골을 내줬으나 후반 5분 리버풀 수비수 글렌 존슨의 자책골을 헌납받고 8분 뒤 안드레이 아르샤빈이 결승골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축제
 * 행사기간 : 12. 2, 28까지
객실 ₩110,000 (조식·세탁·이불 포함)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한식당 제외)
 고객 사은 주점 이벤트, 한식당 스페셜 브레이크, 2009. 12. 21 Happy New Year Party, 노크업 오픈 기념 및 직원 사은회
 * 선불 예약문의 Tel. 061) 228-0000